

# 고차분 작가 서울옥션 경매서 인기

## 7개 작품 7780만원 낙찰...한임수·정선영·김옥진도 두각 전남문화재단 '제로베이스 in 전남' 지역작가 소개 성과

최근 국내 최대 경매사 '서울옥션'이 진행한 '제로베이스 스펙트럼' 온라인 경매에 참여한 서양화가 고차분 작가가 완판을 기록하며 '인기 작가'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열린 온라인 경매에서 고작가의 10호 크기 작품 'Good News' (53.0×45.5cm)는 88회의 경합 끝에 1610만원에 낙찰됐다. 고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로, 다채로운 표정을 가진 아주 작은 집들이 촘촘하게 화면을 메우고 있는 작품은 지난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시에서도 소개됐었다. 고작가는 이번 경매에서 7점을 완판, 모두 7785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고작가가 서울옥션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다. 전남문

화재단이 서울옥션과 공동기획한 프로젝트 '제로베이스 in 전남'이 그 출발이다. 재단은 중앙 화단에 알려질 기회를 줌처럼 갖기 어려운 지역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 '제로베이스 in 전남'을 시작했다.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공모를 통해 경매 참가자를 선정 받은 후 서울옥션 스펙트럼들이 최종적으로 참여작가를 선정하며 참여자의 작품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프리뷰 전시 기회도 갖는다.

지난해에는 8명의 작가가 80여점의 작품을 선보여 100%낙찰됐으며 낙찰 금액은

7475만원이었다. 지난 6월 열렸던 두번째 기획에서는 7명의 작가, 66점이 경매에 참여했고 낙찰 금액은 8800만원이었다.

고차분 작가는 2020년 '제로베이스 in 전남'에 참가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경매에서 '다른 선택'이 48회 경합을 벌여 42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하며 15점을 완판했고, 서울옥션이 전국의 제로베이스 기획전 참가자 중 인기 작가를 모아 진행한 '제로베이스 리미티드' 전에서도 5점을 모두 판매했다.

이번에 진행된 '제로베이스 스펙트럼'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전남, 강원에서 진행된 '제로베이스' 참가자 중 대중의 관심을 받은 작가들과 서울옥션이 선정한 작가가 참여한 경매로 모두 22명이 작품을 선보였다.

완판을 기록한 고작가의 경매 참가작 중 푸른 바다의 이미지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잡지 '예향'의 표지화로도 사용됐던 '바다' (60×120cm)는 1210만원에 낙찰됐으며 두 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Fall in Love, Green Days'는 참여작가 중 두번째 가격인 1615만원에 낙찰됐다. 또 7 작품의 평균 낙찰가액은 1112만원으로 전체 작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고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집'이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집'이고, 그 안에는 인간의 희로애락과 가족들의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작가는 집을 의인화해 소소한 행복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특히 화폭에 등장하는 '웃고 있는 집'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전한다.

고작가의 작품은 '제로베이스 리미티드' 전 이후부터 인기를 모으기 시작해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구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고작가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새벽담은 그림'을 통해서도 컬렉터들의 문의가 활발하다. 고작가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광주아트페어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경매에 참여한 전남 지역 한임수 작가 작품도 인기가 높았다. '붉은 갯벌-와인의 밤하늘 20-8-7' (100×100cm)이 740만원에 낙찰됐으며 7작품의 판매 금액은 3040만원을 기록했다. 또 정선영 작가는 3개 작품이 720만원에 판매됐으며, 김옥진 작가의 경우 5개 작품이 840만원에 낙찰됐다.

전남문화재단은 '제로 베이스 in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들의 평균 낙찰가가 2~4배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내년에도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또 올해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아트쇼'에도 참가, 고차분·김옥진·김성결·서지영·김우성 작가 등 서울옥션 경매 참여작가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가 등 모두 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옥션경매에서 1610만원에 낙찰된 고차분 작가의 'Good News' (10호)



'예향' 표지화로도 사용됐던 고차분 작 '바다'



한임수 작 '붉은 갯벌-와인의 밤하늘 20-8-7'

# 직거래 미술장터 '예술산책Ⅲ-시속30km'

## 8~12일 담양 담주예술구...30명 작가 30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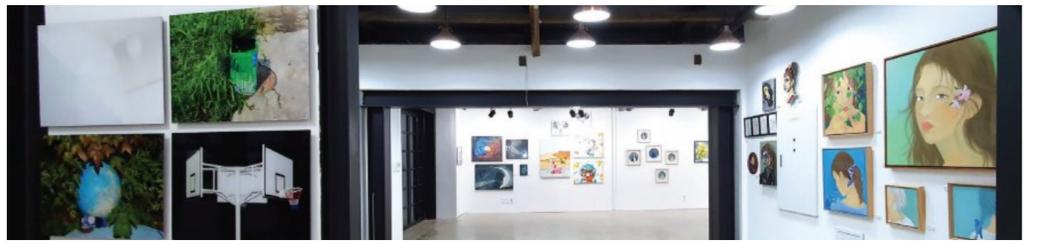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주관사를 선정해 진행하는 '작가미술장터'는 작가들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 애호가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담양군과 예술기업 와사비아가 주최하고 예술산책 팀이 주관하는 직거래 작가 미술장터 '예술산책Ⅲ-시속30km'가 8일부터 12일까지 담양군 담주예술구(담양읍 담주4길 일대)에서 열린다.

담빛예술창고, 담양해동문화예술촌 행사

에 이번 세번째로 마련한 올해 장터는 이인성 작가가 예술감독을 맡고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3명의 큐레이터가 각각 10명의 작가를 선정,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에서는 허달용·임남진·박인선·이세현·이은희·정유진·강지수 등 다양한 연령대의 30명의 작가가 모두 300여점을 전시하며 10만원~200만원대에 작품을 판매한다.

예술공간 집을 운영하는 문화영 큐레이터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와 다채로운 매체를 다루는 작가들을 소개, 미술에 낯선 관람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



작가 미술장터 '예술산책Ⅲ-시속30km'가 8일부터 12일까지 담양군 담주예술구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다. 원화 작품들과 손쉽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디션 작품과 아트상품을 함께 선보인다.

강민형 큐레이터는 코인, 입찰, 투자 등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흥미로운 구매방식을 장터에 도입했다. 'Digital-Not For Technology'를 주제로 구성한 전시는 젊은

세대들의 주식과 코인에 쏠린 관심을 미술시장으로 끌어온 기획이다.

20대인 최영서 큐레이터는 젊은 작가들의 감각에 주목했다. 그는 어떠한 담론과 맥락의 장벽 없이 8~90년대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감각을 극대화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가 진행되는 담주예술구는 죽녹원, 해동문화예술촌, 담빛예술창고 등 다양한 문화 시설과 인접해 있어 근사한 문화 나들이를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https://takeawalkthroughart.modoo.at/>)은 6일부터 운영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단체, 문예회관장 개방형 직위 유지 촉구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지만 지역 문화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개방형 직위 유지를 촉구했다.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은 6일 논평을 내고 "광주시의 입장은 진일보한 조치이나 진정성 있는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당면 현안은 새삼스러운 일이거나 촛각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며, 업무 공백 또한 관리 감독의 주체인 광주시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의 주장대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배치되더라도 업무 기간이 짧아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장고 끝에 약속을 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주시가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 '개방형 직위'를 유지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로 광주시 문화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서정과 자연, 유년과 기억, 개성과 보편...

## 장흥 출신 백수인 시인 '더글러스 퍼 널빤지에게' 출간

장흥 출신 백수인 시인(조선대 국어교 육과 명예교수)이 두 번째 시집 '더글러스 퍼 널빤지에게' (푸른사상)를 펴냈다.

'선달그림', '아버지의 방', '고로쇠나무', '풀뚫', '뜰구름', '민들레 흙씨' 등 모두 60여 편의 시는 서정과 자연, 유년과 기억, 개성과 보편을 아우른다.

나중영 시인은 "그의 시편을 읽고 있으면 그의 고향 장흥 정남진의 바다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평하며, 김창규 시인은 "장흥 산골의 대숲에서 시작한 바람은 복만주 시베리아 벌판까지 따뜻

하게 전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평은 기교나 정지한 언어의 배치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창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시적 공간이 확장된다는 점이다. 시 '주먹밥', '한라산 기술에서 무등을 바라보네', '정남진에서 하얼빈까지' 등과 같은 작품은 시인의 인식이 시공간을 넘어 보편적 지평을 지향하고 있다.

"정남진 해동사/ 청년 안중근 의사가 살아 계시는 곳/ 하얼빈의 총소리가 사자산

골짜기를 짙게 울리네// (중략) 우리가 탄 기차는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역이네/ 선죽교 돌다리에 뿌려진 정몽주의 단상기/ 박연폭포 무지갯빛 물보라에 황진이 얼굴 어른어른/ 만월계 계단에 앉아 늙은 소나무 그림자에 젖어보네..."

"정남진에서 하얼빈까지"는 시인의 시적 경지와 역동적인 시공간의 확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는 상상력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독자들을 무한한 시의 세계로 초대하는 효과를 연출한다. 아울러 독자들에게 심미적 감수성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남훈 평론가(부산대 교수)는 "공간에 대한 개성적 자기 인식과 형상화가 곧 시의 아이덴티티와 시적 경지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수인 시인에게서 공간은 하나의 고정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연속적인 확장적인 벡터를 가진 역동적 이미지로 형상화된다"고 평한다.

한편 백 시인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5·18기념재단 이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 저서 '현대시와 지역문학', '소통과 상상의 시학', '장흥의 가시문학' 등을 펴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부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